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89호 HYUNBULNEWS.COM 2026년 8월 12일(음력 6월 30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워터파크로 변한 동화사**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주지 선광 스님)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성불 레벨업 여름캠프'를 개최했다. 여름캠프에서는 발우공양과 명상, 물놀이 등 수행과 놀이가 어우러진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가 어린이들에게 감사와 나눔의 의미를 전했다. 사진은 26일 오후 진행된 물놀이 프로그램에서 주지 선광 스님과 사중 스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는 모습. 글 · 사진=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 수성과 도전…'3파전' 형성되나

〈守城〉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기획
③ 총무원장 선거 누가 뛰나

특별취재팀

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력 후보들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연임 도전을 위한 채비를 갖추기 시작한 가운데, 정념 스님과 경우 스님도 교구장직을 내려놓고 출마를 가시화했다. 이번 선거는 현 집행부 성과와 향후 종단 운영 방향을 둘러싼 평가의 성격을 띠며 '수성과 도전'의 구도로 전개될 전망이다.

### '연임 도전' 진우 스님

종단 안정 · 힙불교 성과

연임 도전이 유력한 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8월 3일 총무부장에 정문 스님을 임명하는 등 직무대행 체제를 준비하며 사실상 선거 체제 준비에 들어갔다.

진우 스님은 2022년 중앙종회 종책모임과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의 추대를 받아 단독 입후보해, 1994년 종단개혁 이후 처음으로 무투표 당선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취임 이후에는 '선명상 대중화'와 '천년을 세우다'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조직개편으로 종무행정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선명상 보급과 불교박람회, 사찰음식대축제, 연등회 등 대중 친화적 콘텐츠를 통해 이른바 '힙한 불교' 흐름을 주도했다.

특히 임기 동안 종단 안정화와 사회적 약자를 향한 행보를 이어온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9월에는 취임 3주년을 맞아 △선명상 보급 △종단 재정 자립 기반 마련 △AI 포교 콘텐츠 개발 △청년세대 소통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다만 임기 중 고운사 등 전통사찰이 피해를 본 대형 산불과 총무원 청사 화재 등 예기치 못한 위기로 종단 운영의 부담을 안기도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승적 및 학력 논란에 대해서는 "종헌·종법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확정된 사안"이라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 '교구장 22년' 정념 스님

AI시대 미래비전 제시

정념 스님은 7월 31일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직을 사직하고, 8월 6일 출마를 선언하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출마회견 기사 2면〉

정념 스님은 2004년부터 22년 6개월간 교구본사 주지를 지내며 역대 최장수 교구장 기록을 남겼다. 재임 기간 월정사를 수행·교육·복지·문화·환경이 어우러진 종합 수행도량으로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최초로 단기출가학교를 개설해 20년간 35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명상치유센터 '옴뷔' 운영, 노스님 복지시설 조성,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환수 운동 등을 이끌었다. 최근에는 AI시대의 불교윤리 담론을 제시하며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종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스님은 "오대산에서 증명된 성과가 전국 24개 교구로 확산된다면 한국불교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종단 운영 비전을 밝혔다.

종단 안팎에서는 교구 운영 성과와 수행력, 미래비전을 갖춘 후보라는 평가를 받는 한편, 중앙 종무행정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과제로 꼽힌다.

### '다크호스' 경우 스님

중앙 · 교구 두루 경험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역시 8월 6일 교구장직을 사직하며 출마 가능성을 높였다.

경우 스님의 출마 행보는 7월 22일 중앙종회 최대 종책모임인 '불교광장' 회장직 사퇴로 가시화됐다.

2015년부터 선운사를 이끌어온 주지 경우 스님은 '공심(公心)'과 '전법(傳法)'을 핵심 가치로 내세워 왔다. 교구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본말사 공개 살림'을 도입하고 교구공동체 활성화에 힘썼다. 또한 농어촌 포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창 불교회관과 전주 신도시 포교당을 건립하는 등 새로운 포교 모델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앙 행정과 교구 운영을 두루 경험한 이력이 강점으로 꼽히는 반면, 짧은 선거 준비 기간 동안 현 집행부와 차별화된 의제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관건으로 분석된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총무원장 선거 후보등록을 진행한다. 〈관련 기사 2면〉

# 비구니회원葬 출범…"생애 끝까지 함께"

**7월 28일, 법룡사서 발대식**
**광용 스님 "승가 회복 교두보"**



비구니 스님의 출가부터 생애 마지막 회향까지 승가공동체가 함께하는 새로운 복지 체계가 첫발을 내디뎠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는 7월 28일 서울 법룡사에서 '전국비구니회원장 발대식'을 봉행하고 비구니 스님의 상장례와 노후 돌봄을 아우르는 회원장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회원장은 비구니 스님의 출가부터 임종과 회향까지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승가 복지 시스템이다. 지난해 1월 처음 구상된 이후 관련 회의와 설명회, 공청회 등 30여 차례의 공개 논의를 거쳐 이날 공식 출범에 이르렀다.

사업은 크게 두 축으로 운영된다. 비구니 스님의 상장례를 지원하는 장례 봉행, 홀로 생활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스님을 대상으로 한 전화·방문 상담 서비스다. 운영 재원은 기탁금과 후원금으로 마련된다. 기본기탁금은 1500만원으로 상조비와 3일장 장례 비용 등에 사용되며 후원금은 회원장 운영과 상담 교육, 긴급장례기금, 노후 복지 지원 등에 활용된다.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발대식에서 "가슴이 벅차다"면서 "밀알 하나가 국수가 되기까지 수많은 과정이 필요하듯 한 생각 한 생각을 모아 토론하고 논의하며 오늘에 이르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스님의 삶은 공동체의 자산이며 회향 또한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신념으로 회원장을 추진해 비구니 승가공동체 회복의 교두보를 만들겠다"고 발원했다.

회원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금관리위원회와 장례봉행위원회, 전화방문상담위원회 등 3개 위원회도 구성했다. 기금관리위원회는 기탁금과 후원금의 투명한 집행을 관리·감독하고, 장례봉행위원회는 장례계획서에 따라 상장례 전 과정을 주관한다. 전화방문상담위원회는 상담을 신청한 노스님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전화와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지회를 통해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다. 회원장은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임은호 기자

## 현대불교신문 선거보도 준칙

현대불교신문은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를 맞아 독자의 알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선거보도 원칙을 준수합니다.

**첫째, 모든 후보를 공정하고 균형 있게 보도하겠습니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보도를 지양하며, 기사 분량과 사진, 제목, 편집 등에서도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정책과 공약 중심의 선거보도를 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종단 운영 비전을 객관적으로 소개하고 검증하겠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인신공격성 보도는 지양하겠습니다.

**셋째, 사실 확인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보도는 충분한 취재와 검증을 거쳐 보도하며, 논란이 있는 사안은 당사자의 입장과 반론을 함께 반영하겠습니다.

**넷째, 종단의 화합과 건강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선거 과정을 충실히 기록하면서도 종단의 화합과 민주적 선거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는 책임 있는 보도를 하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앞으로도 독자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공정하고 책임 있는 선거보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8월
현대불교신문 편집국

Seoul International Meditation Expo
2026 명상, 함께 깨어나다
2026 MEDITATION, AWAKEN TOGETHER
제 7 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THE 7th SEOUL INTERNATIONAL MEDITATION EXPO
명상체험부스 & 세계명상부스
8.22 (토) - 8.23 (일)
10:00 - 18:00
학여울역 SETEC 제2전시실
오프닝행사
8.22(토) 13:30 ~ 14:00
오프닝공연
순야타(공), 치유의 소리
명상공연
8.23(일)
12:00 들숨날숨과 함께하는 명상음악
13:00 일본 염불명상
14:00 튀르키예 회전명상 세마
15:00 하와이 카히코 훌라 세리머니
16:00 티베트명상
주최 동국대학교 주관 dongguk UNIVERSITY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